

과자 봉지에 관광 명소 담아… 부산시 ‘이색 홍보’ 통했다

PR대상 2개 부문서 우수상 수상
‘햇별충전소’로 자살 예방 캠페인
기업 유통망·시민 생활공간 활용

부산시가 ‘2026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서 ‘자갈치 부기 패키지 협업’과 ‘햇별충전소’ 캠페인으로 나란히 우수상을 받았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상은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며 공공 부문의 소통 역량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홍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 대상 시상으로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았으며 이번 공모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집행된 캠페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상 결과는 지난 21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자갈치 부기 패키지 협업’은 부산시와 롯데쇼핑, 농심이 함께 부산의 대표 캐릭터 ‘부기’와 자갈치시장에서 이름을 딴 농심의 과자 ‘자갈치’를 결합한 민관



부산시가 ‘2026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서 ‘자갈치 부기 패키지 협업’과 ‘햇별충전소’ 캠페인으로 나란히 우수상을 받았다.

협업 캠페인이다.

지역 캐릭터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민간 기업의 상품·유통망을 활용하고, 제품을 통해 부산에 대한 관심을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기획했다.

농심이 외부 캐릭터와 처음 협업한 이 제품은 패키지 뒷면에 자갈치시장, 부산 콘서트홀, 도모현 등 부산 주요 관광지

를 담은 지도를 넣어 제품 자체를 홍보 매체로 활용했다.

전국 100여 개 롯데마트와 400여 개 롯데슈퍼 유통망은 물론 부산시티투어 버스 래핑, 남포역 조형물, 서울·부산 옥외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공공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서 우수상을 받은 ‘햇별충전소’는 자살 예방 메시지를 ‘햇별 쪼기와 산책’이라는 일상적 자기 돌봄 행동과 연결한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동선을 고려해 부산중앙공원, 부산시민공원, 온천천 등 3개 거점에서 15일간 이동형 팝업을 운영하며 마음 건강 자가 진단과 상담 안내를 진행했다. 캠페인 현장에는 2236명이 방문했고, 이 가운데 636명이 자가 진단에 참여해 190명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과 연계했다.

오미경 대변인은 “이번 수상은 정해진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유통망과 시민의 생활 공간 등 새로운 접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도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책과 시민을 더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 방식을 발굴해 부산시 공공 홍보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경북세일페스타, 최대 30% 할인

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경북세일페스타’를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500여 개사가 참여한다. 소비자는 네이버, 우체국쇼핑, 롯데온, 지마켓, 오아시스마켓, 현대이시윌, 공영쇼핑 등 7개 온라인 쇼핑몰의 ‘경북세일페스타’ 전용관에서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온라인 기획전 예산을 지난해 7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김해시

2026년 추경 2조 8381억 편성

김해시가 2조 838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본예산 2조 4816억원보다 3565억원(14.4%) 늘어난 규모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3469억원(16.7%) 증가한 2조 4205억원, 특별회계는 96억원(2.4%) 증가한 4176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원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증가분, 세출 예산 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등으로 마련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울산역·태화강역 운행 확대

울산시는 한국철도공사의 전국 열차 시각표 전면 개정과 고속철(KTX·SRT) 통합 운영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울산역과 태화강역 운행이 확대되고, 울산역의 KTX 이용 요금도 인하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역(KTX)의 경우, 기존 서울행 노선에 하루 5~6회의 열차가 추가로 편성돼 시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행 일반실 운임도 기존 5만35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5500원(약 10%), 특실 운임은 7만4900원에서 6만9600원으로 5300원 각각 인하된다.

태화강역의 청량리행 KTX-이음 노선도 운행이 확대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부산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독서의 달’ 프로그램 풍성

부산시교육청 소속 10개 공공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공연, 강연, 체험, 전시, 토론 등 463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도서관은 ‘9월 도서관이 좋아서’를 한 달간 운영한다. 중앙도서관은 신규 가입 대출자에게 기념품을 주고 연체자의 대출 정지를 풀어주는 ‘도서관에서 만나요’를 진행한다.

구포도서관은 생태학자 최재천 작가를 초청해 북 콘서트를 연다. 해운대도서관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캐리커처 행사 ‘우리 가족 이야기’를 마련했다. 사하도서관은 독서 토론과 도서관 탐방을 결합한 ‘기술도서관 북스테이’를 선보인다.

/부산=이도식 기자



안동하회마을보존회 류열하 이사장(왼쪽 네 번째)과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21일 안동 하회마을을 략고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안동 지역 잇는 관광벨트 구축

경북문화관광공사·하회마을을 협약 입장료 연계 할인도 추진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안동하회마을보존회가 경주와 안동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안동 하회마을 략고재에서 ‘상호협력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북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 홍보·관광마케팅,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지역관광 활성화 등에 적극 힘을 모으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간 상생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경주와 조선 유교문화의 맥을 이은 안동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안동시와 협의를 거쳐 경주엑스포대공원과 하회마을을 함께 방문할 경우 입장료를 할인하는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경주와 안동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연결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체류 시간과 관광 소비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이 열린 략고재는 지난 5월 한일 양국 정상에 만나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나눈 곳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영양 고추 페스티벌, 막바지 점검 분주

서울광장서 27일 개막

영양군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6 영양고추 H.O.T Festival을 앞두고 수도권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행사 전 홍보부터 판매 농특산물 검수와 현장 안전 확인까지 세부 운영 사항을 다시 살피며 축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27일 개막을 앞둔 영양군은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영양고추의 품질과 축제 정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사전 인지도를 높여 행사장 방문으로 연결하고 영양고추의 경쟁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알린다는 구상이다.

판매 품목 관리도 강화한다. 참여 농가와 업체가 준비한 영양고추와 고춧가루 등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상품 상태와 포장 수준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기와 위생

관리 여부도 살핀다. 소비자 응대 등 각 판매부스의 운영 여건까지 점검해 현장에서 형성되는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행사장 조성 역시 개막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서울광장에는 농특산물 판매 부스와 음식디미방·문화관광 홍보관이 들어서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영양군은 시설물 설치와 방문객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안전 관련 사항을 최종적으로 살펴 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영양고추 H.O.T Festival은 생산자가 수도권으로 직접 찾아가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영양군의 통합마케팅 행사다. 영양의 음식과 문화 및 관광 자원을 함께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지역 농특산물 판촉을 넘어 수도권 홍보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 1호선 구형 전동차 40년 운행 마침표

신형 전동차로 전 편성 전환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26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형 전동차의 마지막 운행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1985년 개통한 1호선의 마지막 구형 편성인 제45편성 운행을 끝으로, 40년 만에 전 편성이 신형 전동차로 전환된다.

제45편성은 1997년 6월 25일 첫 운행을 시작해 약 300만km를 달렸다. 26일 오전 9시 18분 다대포해수욕장역을 출발해 오전 10시 36분 노포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영업 운행을 마친다. 이날 운행에는 이병진 사장이 기관사 운전실에 동승해 육성 방송으로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사전 신청 시민들은 부산대역에서 제45편성을 촬영한 뒤 열차에 탑승해 노포차량기지로 이동, 1호선 제1편성 문화



1호선 제45편성.

/부산교통공사

유산 전동차 역사전사관’을 관람한다. 1985년 도입된 제1편성은 국내 최초로 스테인리스 차체와 자동 열차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부산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신청은 공사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구형 전동차 교체 사업은 다대포해수욕장 연장선 차량을 제외하고 총사업비 4330억원을 투입해 4단계로 추진됐다. ▲1단계 40칸 ▲2단계 48칸 ▲3단계 200칸 ▲4단계 72칸까지 마무리되며 약 10년 만에 완료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산청군, 국민이 뽑은 관광명소 37건 선정

‘동의약선관’, 비건 한식 주제 1위

산청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X100 프로젝트’에서 관광자원 37건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공사가 여행 전문가 100인이 뽑은 100개 주제를 놓고 국민 투표로 대표 명소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4만145명이 참여해 9883곳이 최종 뽑혔다.

산청군은 미식, 자연·생태, 여행 취

향, 라이프스타일, 체험·레저스포츠, 문화·예술·전통 등 분야에서 37건이 선정됐다.

동의약선관이 ‘비건 한식’ 주제 1위에 올랐고, 산청맥주는 ‘지금 마시러 갑니다, 술부심 뽀뽀’ 2위, 동의보감촌과 정취암은 각각 ‘K-뷰티 성지’와 ‘기도 여행’ 주제 3위를 차지했다.

남사예담촌·황매산 미라네파크 오토캠핑장·대원사계곡·지리산중산리코스는 각각 4위, 경호강과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사 자동차야영장은 각각 5위에 올랐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